



A means of communication between the World Leadership Community in discernment and every member of the World Community

HORIZONS



[3월 27일(금) 온라인 클러스터 모임 나눔]

“ 6조로 나누어 <호라이즌 186 가족 성찰 기도 나눔>을 나누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자리 안에서,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며, 더 큰 공동체로 나아가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여정이었습니다. 그 나눔의 열매를 함께 공유합니다 ”

[1조]

1st round

- 냉담하는 오빠를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 하셨던 어머니를 보면서 사랑을 알게되었고 자신도 모르게 그 어머니의 사랑을 다른이에게 전하는 스스로를 보면서 사랑이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 사랑의 배우는 것보다 닮아가는 것이란 문구가 마음에 다가왔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사랑의 길이라는 것을 알게되었다.
- 가족은 모이면 그 기쁨은 두 배로 늘어난다는 걸 경험으로 알게되었는데 그를 위해 힘든 가족이나 외로움 사람에게 더 마음을 써야겠다는 알게되었다.
- 가족과 더 많은 시간들 보내고자 노력하는 남편을 보면서 사랑도 노력해야만 이루어진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되었다.
- 어린시절의 아픔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재료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아이들이 같이 살 때는 그 아픔의 극복이 바탕이 되어 그들을 이해하고 사랑을 만들어 가고 있고, 앞으로 남은 생은 다시 남편과 두 사람만의 삶에서 서로의 단점을 안아주며 사랑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은총임을 깨닫게 되었다.

2nd round

- 열린 마음으로 가족에게 다가가는 사랑
- 가족 안에서의 고통은 하나님 사랑의 초대장
- 가족이란 사랑을 가르치는 학교
- 가족에 대해 최선을 다하는 것 /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 사랑은 내가 가진 것음 먼저 내어주는 것

3rd round

- 시간상 3라운드는 끝내지 못했습니다.
-

[2조]

1st round

-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더 깊은 성찰의 시간. 감사와 기쁨으로 반성하며 앞으로 나눌 사랑에 대한 희망을 가져봄.
- 가정의 위기 안에서 더욱 다져진 가족간의 결속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불편함과 갈등 안에서 함께 계셨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신 가정에 감사드립니다.
-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사랑을 배웠음에 감사드립니다.
- 가족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보며 부족했던 자신에 비해 어머니와 아내의 보살핌으로 여기까지 온 시간에 대한 감사함.

열매

- 확장된 가족과 공동체를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하기.
 - 나의 의지에서 더 하나님의 의지로 바꾸는 삶에 대한 희망이 올라옴.
 -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더 이해하고 더 받아들여 보는 섬기는 은총 청함.
 - 하나님의 손길로 가족과 이웃들에게 다가가볼 희망을 담음.
 - 가족과 공동체에 함께 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인내하고 사랑하려는 결심.
-

[3조]

나눔 정리

- 가족뿐 아니라 이웃, 성당 형제 자매들도 공동체 거리두기, 힘든일에 대한 조절의 시간 필요성, 거리두기
 - 가정은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학교, 치유, 포용이 하나님 사랑안에서 받아들여짐, 신뢰와 용서
 - 일일 피정에서 많은걸 느낌, 가족은 끊임없이 새로운 상황을 받아들이는 과정으로 하나님은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신다.
 - 가족 밖으로 사랑을 전하는것에 대해 생각해봄
 - 가족과 밥 한끼 같이 먹는 시간이 중요, 공동체가 나의 가족,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가진듯, 사랑의 기쁨을 주는 과정
 -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 해주기, 가족이 힘들때 옆에 있어주었던것이 많은 힘이 되었다. 동행, 여정
 - 가족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
-

[4조]

1st round

- 가족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배변과 목욕이 필요한 도움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함께하는 가족의 새 의미를 되새기게 되었다.
- 이제까지는 자식에게 도움을 주려고만 했지만 나이가 들어 오히려 자식들의 도움을 받는 것에 가족 공동체가 사랑으로 느껴진다. 가족들과 대화하며 사순시기 기도로 잘 보낼 수 있도록 책을 소개했다.
- 위로의 서비스 사도직, 배우자와의 사별로 힘들게 지내는 자매님을 위로하며 기도하고, 때로는 방문하여 위로하고, 기도문도 안내해 드린다. 또한 여행에서 만난 부부의 사랑의 행동으로 많이 배우고 힐링의 시간이 되었다. 서로 배려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 가족간에 서로 상처, 반목, 오해도 있다. 하지만 내리사랑 이라고 자식에게는 진정한 사랑을 주고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CLCer로 초대 받았는데 감사하며 살아가야겠다.
- 모든 가정이 겪는 일상의 어려움을 통해 하느님과 함께 하여서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의 눈이 열리어 이웃과 함께하는 넓어지고 깊은 생각에 감사.

2nd round

- 감사 / 가족에게 도움이 되고 이웃에게 넘치는 사랑 / 가족안에 넓혀진 사랑의 원천이신 하느님 / 가족간의 대화와 사랑의 실천 / 감사, 사랑을 표현, 실천적 노력

3rd round

- 성령께서 하느님께로 인도하는 느낌 / 어렵지만 우리를 이끄시는 하느님 / 빈 가정을 채우시는 성령
- 시간상 3라운드 는 끝내지 못했지만 많은 열매가 주님 안에서 감사를 느꼈습니다.

[5조]

1st round

- 어려운 시기일수록, 가족 안에서 감사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달음/ 아무것도 기댈것 없고 힘들 때, 청원보다 감사 기도가 나눔/ 어려움 속에서 드리는 감사가 가장 깊은 기도
- 가정에서 진정한 환대에 대한 성찰 - 서로를 위한 섬과 만남의 공간이 있는지 돌아봄/ 감정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환대이며, 지시와 고집보다 이해와 배려가 중요함을 깨달음/ 마음으로 충분히 들어주지 못했던 나를 돌아보며, 이 모든 깨달음이 감사로 이어짐
- 어려움 안에서도 주님의 빛 안에 머물며 바라보는 시선이 변화됨/ 완벽한것은 없다, 갈등과 다툼 속에서 관계가 더 깊어지고 단단해짐/ 사랑은 선택이며, 들어주고 기다리고 머무르고 멈추는 작은 행동임을 배움/ 애쓰를 내려놓고, 좀 더 다른이들을 지지해주고 성장할 수 있도록 관대한 시선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함.
- 관계를 힘들어하던 나였지만,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달으며 변화됨/ 나는 약한 존재이기에, 온전한 사랑은 주님 안에서만 가능함을 느낌 /새로운 가족관계(새 며느님) 속에서 인내와 사랑을 배우며, 서로 알아가는 과정 안에서 주님이 함께 계심을 느낌/ 끝까지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하는 가족이 되기를 청함

2nd round

- 하느님에 대한 사랑 / 부딪힘과 어려움 앞에서 멈추어 서는 것 / 해결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시선 안에 머무르는 삶으로 나아가기 / 진정한 환대에 대한 성찰로,

서로를 위한 섬과 만남의 공간을 마련하고 마음으로 충분히 들어주는 것

3rd round

- 관계 안에서 주님의 현존(드러나심) / 사랑의 시선으로 가족과 공동체를 바라보는 것이 은총임 / 가족 안에서 서로 배우고 성장된 사랑으로 나아감 / 가족 안에 함께하시는 하느님을 인식하고 확장된 사랑으로 이끄심

[6조]

1st round

- *개인 활동과 함께하는 활동- 저는 개인 활동을 감사로 하느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생각하며, 이미 받은 은총과 사랑을 돌아보았습니다. 최근 감사한 순간들을 떠올려 하루에 두세 가지씩 기록하고, 청원의 기도에서 감사의 기도로 나아가며 목주기도를 드립니다. 함께하는 활동으로는 CLC 회원이나 가족과 모여 하나님 현존의 순간과 감사한 일을 나누고,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에게 감사 메시지를 전하는 실천을 합니다.

*이냐시안 가족으로서 성찰- 저는 일상 속에서 가족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아침마다 남편이 끓여주는 커피, 멀리 있는 아들의 전화, 여행 중에도 저를 떠올려주는 딸을 통해 우리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있음을 느끼고, 그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심을 느낍니다. 지금 저의 기도는 잠시 신앙에서 멀어진 가족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 함께 성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 주님 안에서 더 큰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가져온 에스프레소 잔의 동그란 모양은 가족을 떠올리게 합니다. 시작과 끝이 없는 원처럼, 가족의 사랑도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며 그 안에 항상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고 믿습니다.

- 저는 함께하는 활동으로 페루 수녀님께 정성껏 도네이션을 하며, 1년에 두 번씩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왔습니다. 그동안은 이 활동을 그저 일상적인 나눔으로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수녀님께서 병원에 계시고 몸이 많이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접하면서, 그동안의 나눔이 단순한 후원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관계였음을 새롭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번 머무름을 통해 '가족'에 대한 의미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CLC 공동체를 하나의 가족으로 느끼게 되었고, 더 나아가 페루의 아이들도 우리와 연결된 가족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도움을 넘어, 같은 가족을 향한 사랑과 기도의 마음으로 이 나눔을 계속 이어가고 싶습니다.
- 젊었을 때 가족을 위해 드렸던 기도와 지금의 가족을 떠올리며 드리는 기도는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가족의 의미를 더 넓혀, 더욱 깊은 기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 가족이 단순한 관계를 넘어 사도 공동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어려운 과정을 지나면서,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며 이끌어주고 계셨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팀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앞으로 어떤 사도적 성찰과 실천을 해야 할지 더 깊이 고민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가정은 세상에 열려 있으며, 함께 공감하고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라고 느꼈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시며 연대하도록 이끄시고, 때로는 죽음의 순간을 넘어 부활의 체험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삶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 여정 속에서 하느님께서 함께하시며 도전도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공동체의

시작은 가정이며, 나의 가정에서 더 나아가 CLC 가정으로 확장되어 가정의 울타리를 넓혀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nd round

- 가족의 개념이 확장되어 공동체 또한 가족이라는 점, 그리고 페루의 아이들도 우리 가족이라는 나눔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 하느님께서 항상 함께하신다는 말씀에 공감했습니다.
- 청원의 기도에서 감사의 기도로 나아가겠다는 나눔에도 마음이 닿았습니다.
- 페루를 돕는 마음과 공동체의 확장이 곧 가족의 확장이라는 점, 그리고 CLC가 더 큰 공동체로 나아가는 가족이라는 의미에 깊이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 가정은 다른 가족 공동체로 걸어가도록 하느님의 초대를 받았다'는 말씀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3rd round

- 우리 팀의 나눔은 '가족의 확대'라는 주제로 모아집니다. CLC 또한 하나의 소공동체로서 더 큰 공동체로 나아가며, 모두가 하나의 가족이라는 깨달음을 나누었습니다. 가정은 세상에 열린 공동체로서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며,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가정은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받은 초대이며, 이 초대는 다른 가족 공동체로 나아가며 점점 확장되어 큰 공동체를 이루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을 나누고, 공동체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며, 이 사랑을 더 넓게 실천해 나가야 한다는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KCLC 동중부